

고창농촌영화제 내달 30일 개막

조직위, 주민 접근성 극대화 · 외부 방문객 참여 위해 올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서 장소 변경 '실내행사 최소화 · 온라인 상영회 등 병행 추진' 코로나19 확산 상황 따른 대응책 마련도

지속가능한 지역 농촌 문화자산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오는 10월 30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개막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층회의실에서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선 개막일정(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과 장소(고창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 등이 확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영화제는 2018년부터 부안면 북부자클러스터에서 열렸지만 주민 접

근성의 극대화와 외부방문객들의 참여를 위해 올해부터 고창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이어졌다. 조직위는 실내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상영회 등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기영(NH농협 고창군지부장)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고창농촌영화제가 고창의 특색있는 농촌영화제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모인 조직위원회가 해

야 할 역할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창군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비대면 산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모습의 영화제로 거듭나도록 조직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는 고창농촌영화제라는 고창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 육성에 앞장서고, 농생명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19일 정립총회를 통해 꾸러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시립무용단의 제40회 정기공연 '무풍천리(舞風千理)-명무에게 춤을 묻다'가 10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무풍천리(舞風千理)-명무에게 춤을 묻다

익산시립무용단, 10일 정기공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 무관중 진행

익산시립무용단의 제40회 정기공연 '무풍천리(舞風千理)-명무에게 춤을 묻다'가 10일, 익산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비록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18일 이후부터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많은 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익산 시립무용단(감독 박종필)뿐만 아니라 양성욱(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한혜경(한국심이체장 고출 보존회 이사장), 이길주(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산조춤 보유자), 정명숙(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국수호

((사)국수호 디딤무용단 이사장 겸 예술감독) 등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명무들이 함께하여 더욱 깊은 춤사위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칠감산을 부른 가수 주병선의 무대로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작품도 구성했다.

공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익산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자 익산 시립무용단(감독 박종필)의 공연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코로나는 잊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꼴랑 어른' ... 소설 · 동화의 애매한 간극의 틈에서

gallery 숨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 유지연 개인전

14일부터 26일까지 전시
삶에 대한 이야기 담겨

gallery 숨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에서는 14일~26일 '꼴랑 어른'이라는 주제로 유지연 개인전이 열린다.

유 작가에 따르면 '꼴랑 어른'을 통해 책을 펼쳤다.

덮고 펼치기를 반복하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소설과 동화의 사이구나. 그 애매한 간극의 틈에서 나를 여실히 들여다보게 된다.

막연하게 알아서 흘러가기를 바라겠까. 다 여물지못한채 내가 만든 보잘 것 없는 틀과 목표

에 맞춰서 내 삶을 썬내려가고 있는건 아닐까.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채 그저 망망대해에 동동떠다니고 있는 꼴이라니. 나를 자유롭게 못하게하는게 나라니. 시린과도를 맞닥뜨려도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는없는 겉까.

삶이 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 스스로를 마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고행하듯 꾸준히 어르고 다듬어가며 나를 썬내려갈 것이다.

알알이 채워지지 못한채 내 안에 움트는 모든 어른이의 자화상을 바라보며 격려와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한편 유지연 작가는 군산대학교 예술대학(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장은성 기자

'숲속 초막 셋' 건축의 날 초대작품전 전시

전주대학교 김준영 교수(건축학과)의 '숲속 초막 셋'이 2020 건축의 날 초대작품전에 출품 전시된다.

오는 24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제16회 건축의 날 기념 초대작품전'에서는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건축 설계 · 구조 · 시공 · 설비 등 전 분야의 엄선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준영 교수의 '숲속 초막 셋'은 '바태복음 17장 4절의 성경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되는 예배당으로 초막 세 개를 결합한 형태의 6평 규모 건축물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로 겸손과 순종, 경건한 삶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숲속 초막 셋'은 전주대 스타장에서 대하

전주대 김준영 교수 작

본관으로 이르는 오솔길 중심에 건립되며 세계의 문이 출입구이자 보행통로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스타장원에 핀 꽃을 즐기며 휴과 여유를 느끼고, 기독교인들은 공간의 중심에 매달린 십자가를 보며 묵상할 수 있다.

김준영 교수는 "2020 건축의 날 초대작품전과 곧 완공된 숲속 초막 셋에 방문해서 많은 분들이 휴과 위로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며, "숲속 초막 셋을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숲속 초막 셋'은 지난달 19일 건축기



'숲속 초막 셋' 건축 그래픽 이미지

공예배를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경 완공돼 학생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춘향국악대전 '잠정 연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2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남원 춘향제 기간 개최하고 있는 제47회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춘향국악대전은 당초 12일부터 13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 함파우소리체험관,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경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2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국악대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악대전운영위원회 김무길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 결정하였으며, 추석 연휴까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종목별 개최 시기를 분산 시행 또는 대회 전면 취소 등을 재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춘향국악대전은 관소리 명창부를 비롯해 관



지난해 열린 춘향국악대전.

소리, 무용,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민요 등 5개 부문 13개 종목으로 나누어 학생부와 일반부 대회가 이루어지며 올해로 47회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계가 인정하는 상생평화의 문화관광 도시 실현

축제·마술대회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희망 미래, 흥성하는 김제

김제시